

# 최악의 경우 전원 관선이사로 교체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압박...조선훈 이사 선임 어떻게

## 이사진들 갈등에 해법 못찾고 혼란 30일 이사회서 결원이사 선임 주목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탈바꿈한 지 3년만에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거론되면서 조선훈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문제는 학교법인 운영과 차기 이사진 구성을 맡고 있는 이사회가 먼저 거론했다는 점에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정상화 3년만에 임시이사 체제

거론 = 조선훈대는 지난 1987년 1·8항쟁으로 인해 옛 경영진이 퇴진한 뒤, 그해부터 2009년까지 22년여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어 교육부가 2009년 12월 31일 교육부와 옛 경영진(종전이사), 학교 측이 추천한 인사 등 9명을 학교법인 조선훈대의 이사로 선임하면서 조선훈대는 정상화(정이사체제)가 됐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지 6개월여 지난 이사들이 모

두 연임을 원함에 따라,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결국 교육부가 이사를 파견하는 임시이사 체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조선훈대 이사회에 결원이사 1명의 선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임시이사 파견 문제가 교육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지난 7월 조선훈대 이사회가 '8월 회의에서 결원이사를 뽑지 못할 경우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의결한 인사 등 9명을 학교법인 조선훈대의 이사로 선임하면서 조선훈대는 정상화(정이사체제)가 됐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지 6개월여 지난 이사들이 모

못하면, 교육부가 최악의 경우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을 들어 결원이사 1명이 아닌 이사 전원 8명을 임시이사로 파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임시이사 파견은 그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이사진 구성 의무를 저버린 이사회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꼭 막힌' 이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부는 우선 결원이사 1명의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이사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결원이사 1명을 보충해 정원 9명을 임명하는 것인데,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인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원이사 1명을 선임하지

면 회의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 대학 구성원들은 총장과 총동창회장을 단연직 이사로 보충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파벌 싸움과 연인육심, 이사회 자리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대립만 하는 이사회라면 정이사체제 보다는 임시이사체제가 낫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임기가 6개월여 지나 사실상 대학을 이사회 부존재 상태로 만든 책임이 있는 만큼 현 이사들에게 법인의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사들간 폭력사태까지 발생, 이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연꽃이잖아? 참 예쁘네!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전자 수지를 찾은 젊은이들이 일제히 연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을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영점' 못잡는 광주·전남 경찰

전남, 사격훈련 정례 평가 최하위권...광주는 '뒷걸음질'

광주·전남 경찰의 사격 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김 현 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2009년 이후 83.19점에 비해 5.89점이 떨어져 16개 지방경찰청 중 점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계급별로는 경위급 간부들의 사격 평균 점수가 74.58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지방청도 지난 2009년 사격훈

련 평균 점수 81.94점보다 3.34점이 하락한 78.60점에 머물렀고 순경들의 사격 평균 점수(75.09점)가 낮았다.

2009년 143회에 달했던 전남 경찰의 사격 훈련 횟수가 올 상반기 60회로 줄어들고 참가 인원도 줄어들면서 사격 실력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오발사고 등을 막기 위한 훈련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검찰, 동함평산단 불법 의혹 수사 안병호 군수 등 '무혐의' 처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안병호 합평 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합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7개월 동안 감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투유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등 감사원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동함평 산단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 시행사 대표 주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구

속했다. 주씨 등은 합평군이 모 증권사로부터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8억원을 챙긴 혐의이다.

한편 산단 감사청구인들은 "앞으로 감사원 재감사 청구 및 재정신청 등 검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착공한 동함평 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총 7315억원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함평 = 황운학기자 hwang@목포 = 김병민기자 dss6116@

## 박대통령 사촌언니 아들 억대 사기혐의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억대 사기혐의를 벌이고 도주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 및 부동산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1분 해질 18시 47분 달출 10시 46분 달몰 21시 34분

**구름 잔뜩**  
흐린 가운데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었다.

광주	흐림	19/27°C
목포	흐림	20/26°C
여수	흐림	20/26°C
나주	흐림	17/27°C
완도	흐림	19/27°C
구례	흐림	18/27°C
강진	흐림	17/27°C
해남	흐림	17/27°C
장흥	흐림	17/27°C
순천	흐림	17/27°C
영광	흐림	18/27°C
진도	흐림	18/26°C
전주	흐림	19/26°C
군산	흐림	19/25°C
남원	흐림	17/27°C
옥산도	흐림	21/24°C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경고 보통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6	19/28	20/28	22/26	21/27	20/28

## 고주과 수술도 보험금 받는다

태아 보험·어린이 보험도 고객 유리하게 약관 변경

신체를 절개하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 외에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이 보험 가입 기간에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만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 일반적으로 유리했던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해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수술 범위에 첨단 수술을 포함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

첨단 수술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했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이 대표적이다. 치아보철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한다.

/연합뉴스

##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10월 28일 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월에 열릴 전망이다.

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

목(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물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부 9번 2012년 12월 10일 1회 1회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잠정적으로 10월 28일로 지정했다.

/전주·군산 = 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쌍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방원)	061)287-4100

추석 연휴에 떠나는, 마카오 & 홍콩  
무안출발 9월 20일 단, 하루! ★20석 한정★

마카오/홍콩(2박) 4일	899,000원~
마카오/홍콩/심천 4일	799,000원~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장가계 직항 전세기**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

무안출발 10월 8일(화)~11월 12일(화) 총 11회  
매주 화요일(3박4일)/금요일(4박5일)

장가계/원가계 4일	899,000원~
장가계/원가계 5일	999,000원~

**석가장 직항 전세기**

인천출발 9월 28일~11월 9일  
매주 수요일/토요일

4가장/태항산 5일	799,000원~
태항산/연산 5일	899,000원~
구련산+관선산+태항대합곡	699,000원~
태항산 4일	799,000원~

진중모객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11일  
10월 7일출 단하루  
3,990,000원

부사출발  
홍콩/마카오/싱가포르/일본/대만/타이완 4일  
399,000원~

뉴욕 북미출발  
코트야드 뉴욕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호텔  
9~10월 한정 특가 100% 한정  
9월 \$360 → \$119  
10월 \$360 → \$229

여행상품 가격표내역에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됨. 유행류는 상가상품 가격의 별도지정됨.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권비 선택관광료비, 안내관광료비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광공공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진흥신고서 T.01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패키지 ■항공사별로 유행류상품 인상금액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